

##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

박희성\* · 조정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Chung Yakyong's View of Nature and the Meanings of His Garden, *Tasanchodangwon*

Park, Hee-Soung\* · Cho, Jung-S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 ABSTRACT

As a study on a traditional garden with historical valu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internal meanings of the garden in a designer's personal perspective. *Tasanchodangwon* was designed Chung Yakyong who is a scholar of Practical Learning(實學) in late Chosun(朝鮮) Dynasty. Considering the features of him and basic approach of this study, the internal meanings of the *Tasanchodangwon* was approached with the focus on the view of nature of him, and through general review of physical components of the garden. Additionally the meanings of the garden were also reviewed in his personal situ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according to the view of nature of Chung Yakyong, his intention to enrich life practically by building separate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his residence, creating lake by having water supply, and creating vegetable garden relates with the view of nature in Primary Confucianistic(原始儒學) perspective. In addition, the place served as a ground to support Chung Yakyong's attitude to become a man of virtue. Second, his preference to enjoy tea culture allowed an opportunity for him to accept circumstance positively and discover the self. Components related to farming reflects his Practical Learning. The man-made rock mountain in the pond is a specific technique for Yi-Jing(意境). And third, literatures authored by Chung

Yakyong show that internal meaning of *Tasanchodangwon* is to pursue an utopia. This is closely related to solving his conflicts felt in reality.

In short, *Tasanchodangwon* is a form reflecting the spiritual world of Chung Yakyong, and through interaction with his life, served as a ground to culture his mind.

## I. 서론

시류를 힘입은 전통에 대한 연구는 이제 조경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의 흐름을 반드시 염두하지 않고 서라도 전통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유용한 성과를 가져다주며 문화요소의 창조에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해보자면, 그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전통정원의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과거에 선호하였던 경관이나 그 당시 조작하였던 정원들을 보다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관(史觀)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적 요소의 재현이 전통정원 창조의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의 조경 현실에 대해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진부하기조차한 전통정원의 계승이라는 입장에 대해 또다른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약용(丁若鏞)의 개인 정원인 다산초당원(茶山草堂園)<sup>1)</sup>의 내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을 기본적인 논의사항으로 삼고자 한다.

정약용(1762-1836)은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살았던 철학자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여 개화운동을 선구했던 사람이다. 자(字)는 미용(美鏞)이며 호는 다산(茶山), 여유당(與猶堂), 자하도인(紫霞道人), 문암도인(門巖道人), 죽옹(竹翁), 탁옹(籜翁), 삼미자(三尾子) 등이다.

그의 정체성은 조선후기의 사상적 주류를 이루었던 성리학적 태도와 비교적 다른 궤도를 구축한 인물이라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정약용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의 자연관을 정원의 의미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작게는 그가 유일하게 남긴 다산초당원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되겠지만 크게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경관관(觀) 중 하나의 단면이 될 것이다.

또,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 정원의 의미 고찰 이외에도 공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원이 실제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창조되어지는 공간임을 주지한다면, 그곳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작정자의 행태를 추정하게 하여 정원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풍요롭게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현실적 삶 - 유배생활 - 에서 이해되어지는 다산초당원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II. 정약용의 우주론적 자연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자연(自然)’이라는 말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은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도가(道家)이다. 여기서 ‘자연’이 의미하는 바는 “스스로 그러하다”, 혹은 “저절로 그러하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nature’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또

1)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초당(草堂)’ 건물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그 일대 전역을 공간적 범위에 넣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산초당원(茶山草堂園)’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이 정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103-2번지, 만덕산 서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적(史蹟) 제107호로 지정된 역사공간이다.

는 세계의 근원적인 활동과 존재양식에 대한 의미를 논하게 하는 만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각이 가능한 현상적(現象的) 대상세계(對象世界) 전체를 가리킨다.

유학에서는 본래 '자연'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물세계를 지칭하는 '자연'은 유학에서 흔히 언급하는 '우주(宇宙)'와 큰 차이 없이 '천지(天地)·만물(萬物)'로서 서로 상통한다. 그러므로 유학의 범주에 있어 우주에 대한 인식은 곧 자연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은 유자(儒者)들에게 우주적 철리(哲理)를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절에서 살펴보게 될 정약용의 우주론적 자연관은 그의 인식세계에 나타나는 관념적인 자연의 모습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약용이 인식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천(天)' 사상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성리학적 자연관과 가장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성리학에서 '물(物)'은 천(天)·지(地)·인(人)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포함하며 이것을 하나의 이치라 할 수 있는 '천(天)'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만물일체'의 개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천(天)'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물(物)'을 '천'과 분리시켜 보다 독립적인 의미로 이해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는 자연세계를 '주재자(主宰者)로서의 천(天)', '자립하여 존재하는 물(物)', '천(天)의 영명성(靈命性)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뚜렷이 구분 짓는 가운데, 성리학에서 하나의 이(理)로 이해되었던 '천(天)'을 창조주로서의 하늘과 일월성신(日月星辰)과 같은 유형한 하늘로 양분하여 이해하였다. 이는 고대 중국의 '천(天)' 사상을 내용으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전자는 신격

(神格)을 지닌 무형한 '천'이고 후자는 자연계의 형체(形體)적 현상으로 나타난 '천'을 말한다.<sup>2)</sup>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오직 무형한 천(天)만이 만물을 생성하였고 물(物)은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의 상(象)을 이루어 태극(太極)의 이(理)로부터 독립된 질서와 법칙을 소유하여 각각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천지만물의 이(理)는 각기 만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인데 어찌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을 수 있겠는가? 개에게는 개의 이(理)가 있고, 소에게는 소의 이(理)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데 어찌 억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으랴.<sup>3)</sup>

성리학의 경우, 만물은 다같이 태극(太極)의 이(理)를 근원으로 하고 있어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본연지성(本然之性)의 면에서는 같지만 -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 기질지성(氣質之性)의 면에서는 각기 하늘로부터 받은 기의 청탁(淸濁) 등으로 말미암아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갈라진다고 한다. 반면에, 정약용은 인간, 금수, 초목의 성(性, 즉 理를 가리킴)을 상·중·하의 등급으로 나누어 그 도덕성을 근거로 하여 인성과 그것의 특성이 같지 않음을 논하고 물(物)과 인(人)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우주론적 자연관에서 정약용이 인식하고 있는 자연은 효율적으로 다루고 이용하여야 할 객관적인 대상이며 자연과 인간을 대상과 주체로 간주하는 가운데 대상인 물(物)의 세계, 즉 자연은 탐구되고 이용되어야 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이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과학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독자적인 지위를 점유한 존재가 된다.

2) 장동희(1986), 『정약용의 정치사상』, 서울 : 일지사 : 48.

3) 天地萬物之理 各在萬物身上 安得皆備於我 太有太之里 牛有牛之里 此明明我之所無者 安得強爲大談 曰皆備於我乎 (정약용, 《孟子要義》 제2집 제6권 : 39, 『全書』2)

### Ⅲ. 문예활동에서 나타난 정약용의 자연관

자연은 유자(儒者)들에게 이러한 우주적 철리를 상기하게 하는 한편, 그들에게 시를 짓게 하는 중요한 마음 상태를 부여하고 미적 만족감이나 조화감을 갖게 하는 바탕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즉, 시나 회화를 통해 자연을 노래하고 이를 일상화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감의 벡터를 우주적으로 확장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긴밀히 형성하였던 것이다.<sup>4)</sup>

그러므로 정약용이 남긴 시, 회화 등의 문예 작품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미적 측면에서의 자연관은 그의 총체적인 자연관을 정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1. 회화(繪畵)

정약용의 회화관은 정확한 관찰과 묘사에 의한 형상표현의 실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형(形)의 관찰없이 교묘한 손놀림으로 뜻을 그려 사의(寫意)에 지나치게 집착하였던 당시 유행하였던 문인화를 비판한 것으로, 그의 현실비판적 태도와 잘 부합된다.

〈그림 1〉은 정약용 자신이 직접 그린 「산수도(山水圖)」이다. 화폭에 있는 제시(題詩)의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연한 떡갈나무 기름진 오동잎은 모두 피었지만  
한 그루의 고목은 홀로 쓸쓸하게 서 있네  
범관(范寬)의 붓솜씨(筆意)와 서희(徐熙)의 먹빛으로  
낮은 산, 물 넉넉한 곳으로 즐거이 향했네<sup>6)</sup>

이 그림에서 화제(畫題)가 되는 세그루의 나무는 저마다의 특징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발묵(潑墨)으로 표현된 오동잎은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화면에 악센트를 주고 있다.<sup>7)</sup> 또, 제



〈그림 1〉 정약용, 「산수도(山水圖)」<sup>5)</sup>

시에서는 산수화로 유명한 송대(宋代)의 범관(范寬)과 꽃, 수목, 풀, 벌레등을 잘 그린 남당(南唐)시대의 화가, 서희(徐熙)의 사실적 화법을 본받으려 했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대상을 관찰하려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관찰력 있는 묘사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그의 회화작품이 화의(畫意)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위의 제시 내용 중에는 세 그루의 수목 가운데 고목(枯木)을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으며<sup>8)</sup> 다른 예술작품에서도 그의 내면에 담겨있는 정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가 추구하였던 화의와 사실주의적 회화관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것은 조선후기 성리학을 비판하고 원시유학(原始儒學)에 학문적 근거를 두고 있는 그의 학문관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본래, 공자(기원전 551-479)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란, “그림을 그리려는 바탕부터 하얗게 다스려 놓고 하는 것(繪事後素)”<sup>9)</sup>이라고 하였다.

4) 김우창·김종철(199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포에티카』 제1권 1호, 서울: 민음사: 28.

5) 정약용 그림, 제작년도 미상,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앙일보사(1982), 『韓國의美 - 산수화 下』 12권: 圖 156)

6) 穉○肥梧葉正舒 此株枯木獨蕭疏 范寬筆意徐熙墨 好向殘山剩水處

7) 위의 책: 256-257.

8) 이태호(1982), “茶山 丁若鏞의 繪畵와 繪畵觀.” 『茶山學報』 제4권, 다산학연구원: 42-44.

이는 그림 그리는 자체의 행위에 가치가 있기보다는 결과물을 창조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림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마음의 수양에 있음을 의미한다.

유학에서, “도에 뜻을 둔다” 등의 주요 실천 과제 외에 “예를 체득하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물질로부터 현실적으로 객관세계를 장악하여 다면적(多面的) 발전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객관세계를 제어하는 과정 중에서 심신의 자유를 감수하고 획득할 것에 대한 주장을 표현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공자의 기예장악이 그의 인격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작용에 대한 중요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유희가 아니라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재도·재능·질서와 유관한 것이기 때문이다.<sup>10)</sup>

정약용 역시 회화를 존심(存心)·양성(養性)의 수기(修己)적 과정과 제(齊)·치(治)·평(平)으로 연결되는 유가적 교학목표를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회화를 통해 유학 원래의 도(道)를 밝히고 덕을 쌓는데 전심하여 유자로서의 본분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유학적 규범을 한층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회화관속에서 ‘자연-산수’는 정약용에게 있어 만물의 시원(始原)이자 우주적 질서의 근원으로 간주되어 그림의 중요 소재가 되었다.

그는 산수화를 보는 즐거움에 대해 “그림 속의 산수에서 놀 수 있고 거닐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으며, 명승을 통하여 눈을 즐기고, 여름에는 설경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을 청량하게 하고 겨울에는 염상을 완상하며 몸을 훈훈하게 하여, 결국 심신을 즐겁게 해준다(看畫中山水須看其間可遊可居之處 我娛目之具夏觀雪景 令人心骨

清涼 冬玩炎象令人神體煖)”<sup>11)</sup>고 하면서, 모든 그림 가운데 산수화를 으뜸으로 꼽았다.<sup>12)</sup>

그에게서 회화 - 특히 산수화 - 는 그림 안에 나타나는 자연의 기운을 통하여 인간의性情(性情)을 풍부하게 하고 군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 2. 시(詩)

정약용은 세상을 근심하고 민초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회를 풍자하는 윤리시·사회시·우화시들을 많이 남겨 그의 시문(詩文)세계의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들도 수 작품이 남아있다.

### 과경양지(過景陽池)

온갖 나무 우거져 큰길을 굽어보고  
역루(驛樓) 가까이엔 꽃다운 연못 하나.....  
연꽃 피어 뱃놀이 제격이구나  
위대하구나, 관개(灌溉)의 힘  
천(千) 이랑 논들이 넘실넘실 출렁이네<sup>13)</sup>

위의 시에서 정약용은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저수지를 지나면서 뱃놀이를 하기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넓은 들판에 물을 대서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관개의 힘, 인간의 힘에 감탄하고 있다. 그에게서 인간이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는 미적 정서를 매개로 한 관계가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산을 매개로 한 관계도 되는 것이다.

그의 시에는 자연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 양상이 종종 나타난다. 이것이 단순히 시적인 기법이나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는 세계관적 사유의 산물인가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된 바가 없지만, 자연을 인간 사이에 두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그의 시에서 공통적으

9) 허영환(1988), 『中國畫論』, 서울: 서문당: 63에서 재인용.

10) 이택후 저(1990), 권 호 역(1994), 『華夏美學』, 서울: 동문선: 19-21.

11) 정약용, 『看畫樂』, 『山林經濟』: 『鮮文 朝鮮博物志(全) - 原名 山林經濟』, 朝鮮研究會藏版: 395.

12) 品畫以山爲上 (정약용, 위의 책: 395)

13) 雜樹臨官道 芳池近驛樓 竹密妨行馬 荷開合汎舟 弘哉灌溉力 千畝得油油 (정약용, 『詩文集』 제1집 제5권, 『全書』1)

로 나타나는 것은 눈여겨봄 직하다.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연과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 또한 원시유학적 입장과 공통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3. 산수기행(山水紀行)

『여유당전서』에 나오는 그의 행장을 살펴보면 산수경관이 수려한 곳들을 기행하거나 방문하여 시를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산수기행을 그가 해배한 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그의 시작(詩作)과 회화는 대부분이 이러한 산수 기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본래 '산수'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육조(六朝)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유학자들은 인간성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였는데, 인간이 지니는 감성과 성정(性情)은 덧없고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이러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여러 한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성정을 도야하는 터전으로 중시된 것이 산수라는 이름의 자연이었다. 이로부터 이른바 산수의 문학이 생겨나고 자연은 예술가와 지식인의 미적 향수의 대상이 되었다. 산수에서 노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세속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마음의 울적함을 풀어 줄 뿐 아니라 현상계를 넘어선 천지우주의 존재원리인 자연과 일체를 이루게 한다. 즉, 인간이 산수에서 유(遊)함은 곧 도를 체득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다.<sup>15)</sup>

이는 앞서 언급한 정약용의 산수기행의 목적

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의 행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산수기행의 기록들은 그가 비록 실학자적 입장을 가지고서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비판하였지만, 자신은 내면세계의 도의 체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 Ⅳ. 다산초당원의 조영 당시 주변상황과 공간 구성요소

### 1. 다산초당원 조영 당시의 주변상황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다산초당원의 조영시기는 단순히 정약용의 유배기간동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산초당원의 조영시기를 유배시절이라고 막연하게 정의 내리기에 당시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몇 가지 드러난다. 우선, 왕에게 버림받은 조정의 신하가 유배지에 와서 자신의 거처지에 정원을 꾸밀 수 있었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설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원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정원에 반영될 수 있었겠느냐는 점이 문제시된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다산초당원의 보다 정확한 조영시기와 함께 파악될 수 있는 유배지의 당시 분위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생활을 시작한 때는 1801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산초당원에서 생활한 것은 1808년부터 그의 유배생활이 풀릴 때인 1818년까지로 알려져 있다.<sup>16)</sup>

정약용의 유배생활 초기에는 여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는데 강진 동문밖 주막의 한 칸 방에 머물도록 주거가 제한되었고 일체의 출입도 금해져 사생활이 전혀

14) 기록에는 1820년과 1823년 두 번에 걸쳐 청평산 일대 - 지금의 춘천 소양강 일대를 가리킴 - 를 둘러보며 절경들을 읊은 시들이 「산행일기(汕行日記)」안에 묶여 있다. (정약용, 『詩文集』 제1집 제22권 : 45-60, 『全書』1)

15) 박낙규(1986), "六朝시대 藝術論의 특징," 『미학』 제11권, 한국미학회 : 11-19.

16) 戊辰年 徙居茶山 築臺穿池 引水爲飛流瀑布 治東西二菴 藏書天餘卷 著書以自娛 茶山在萬德寺西處士尹博之山亭也 石壁刻丁石二字以識之 (정약용, 『自撰墓誌銘』, 박석무 역주(1985), 『茶山散文集』,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321-322에서 재인용)

허용되지 않은 채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그 당시는 한동안 신유박해건으로 인하여 사사로운 일까지 간섭 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글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 마을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유배 생활의 결정적인 완화는 정순 대비의 승하(1805년)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정약용은 비로소 자신의 거처를 여러 곳으로 옮기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sup>18)</sup>

완화된 유배생활 속에서, 굴동(橋洞)<sup>19)</sup>의 초당에 정약용이 옮겨 생활한 것은 1808년 봄의 일이다. 본래 이곳은 윤취서, 윤유서 형제가 마을 뒷산에 건물을 짓고 차나무와 대나무 등을 심어 가꾼 공간으로, 그 주변에 사는 해남(海禱) 윤씨(尹氏)들의 강학(講學)공간으로 활용하였던 곳이다. 윤취서의 손자 되는 윤단(尹持, 1744-1821)때에 와서 그와 그의 아들들의 배려로 정약용이 이 초당에 머물게 되었다(1808-1818년). 이때부터 이 공간을 다산초당(원)이라 명명하였으며 그는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본격적인 학문탐구와 저술활동을 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정약용의 활동범위의 확대는 거처를 옮겨 다닌 것 외에도 나타나는데, 「초의선사연보(草衣禪師年譜)」에는 1809년 초의선사와 해남 대둔사(大菴寺)에서 첫 대면이 있는 뒤, 그곳을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812년 9월 22일, 초의, 정약용, 윤동 세사람은 월출산 백운동(白雲洞)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sup>20)</sup>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유배자이었지만 다산초

당원 일대를 그의 의지대로 조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의 학문이 바로 이 다산초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 공간에 대한 의의는 남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다산초당원의 조영시기는 『여유당전서』에 있는 몇몇 시문(詩文)들에서 잘 나타난다.<sup>21)</sup> 다산초당원은 정약용이 그곳에 기거한 지 2년이 지난 1810년 전후시기에 조영되었으며 여기에는 채포와 못의 규모 확장, 가산(假山)축조 등의 공사가 포함되었다.

## 2. 다산초당원의 공간 구성요소

현재 다산초당원의 형태는 1950년대 이후 복원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모습이다.

1810년을 전후하여 조성된 다산초당원은 1936년을 전후하여 멸실(滅失)된 후, 두차례에 걸쳐 복원되었다.<sup>22)</sup> 이러한 복원사업은 역사적 기념성을 기리는 데에는 큰 공헌을 하였으나 사업집행 당시에 살펴보아야 했던 사료고찰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공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복원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의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산초당원의 공간에 대한 통시적인 역사적 고찰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sup>23)</sup>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산초당원의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현재 공간을 기준으로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다산초당원 주변에는 대나무와 동백나무, 삼나

17) 又責我不爭 鑪既至康津 杜門不見人 任戌夏 縣監李安默 又誣以微事 無實乃已 (위의 책 : 321에서 재인용)

18) 다산초당원과 이웃해 있는 백련사(白蓮社)의 주지로 있던 아암(兒菴) 혜장(惠藏)선사(禪師) 배려로 고성사(高聲寺)의 보은산방(寶恩山房)에 머물기도 하였으며 정약용의 제자인 이학래의 집과 백련사에서도 일시적으로 기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家入一雄 외 저(1940), 김명배 역(1991), 『朝鮮의 茶와 禪』, 서울 : 보림사 : 240)

19)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산 기슭, 해남 윤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지칭한다. (광주직할시(1994), 『교원 연수원 현장 설명자료』 : 183)

20) 草衣 著, 임종욱 역주(1993), 『草衣禪師年譜』, 『草衣選集』, 서울 : 동문선 :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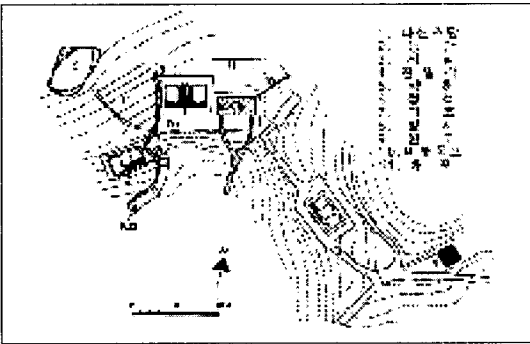
21) 특히, 「다산화사 20수(茶山花詞 20首)」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다.

22) 『茶山 丁若鏞先生 遺蹟碑 碑文』(다산학연구원(1978), 『茶山學報』, 제1권 : 238-239 참조)

23) 참조. 박희성(1997),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44-86.



〈그림 2〉 다산초당원 - 현재



〈그림 3〉 현재 다산초당원 평면도

무 등 각종 수목이 우거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천일각쪽에서는 강진만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는 등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건물로는 다산초당, 동암, 서암, 천일각이 있으며 그 밖의 외부 공간요소로는 차를 끓이는 부두막으로 이용된 다조(茶竈), 찻물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약천(藥泉),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의 연지석가산이 있다. 주요 수목으로는 동백나무, 차나무, 적송, 이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령이 오래된 팽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도 식재되어 있다.

## V. 다산초당원의 의미

### 1. 자연관 측면에서의 의미

앞서 살펴보았던 정약용의 자연관은 당시 성리학자들의 인식체계와 문예활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원시유학적 자연관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정약용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원시유학에서는 자연을 어떠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원시유학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그들의 학문적 성격만큼이나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다. 순자(荀子)가 말하는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자연 정복적 항쟁형태이기 보다는 자연 순응적 동구(同構)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며<sup>24)</sup> 맹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연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자연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는 한 인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5)</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학에서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자연에 순종한다는 말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자연을 보다 잘 이용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자연의 본성을 잘 알고 그러한 바탕 속에서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조작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입장을 같이함과 동시에, 자연을 인간의 내면적 수양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연을 심미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것의 형태를 통해 신의(神意)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정과 감정을 풍부하게 하여 완전한 인격의 수양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연을 대상으로 ‘예(禮)’를 체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인간의 완성에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자연관에 입각하여 다산초당원의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산초당원에서 강학을 위한 공간과 자신의 거처를 분리시켜 건물들을 짓고 물을

24) 이택후 저(1990), 앞의 책 : 94.

25) 안종수(1995), “孟子的 自然觀,” 『철학』11, 한국철학회 : 15.



끝이다 못을 만들며 채포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삶에 대한 풍요로움을 피하고자 한 정약용의 조영태도는 원시유학에서 강조한 '자연의 인간화'라는 입장을 잘 반영한다. 그리고 다산초당원에 기거하면서 남긴 수많은 시문들과 회화작품들은 도의 체득의 결과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생활의 장(場)이었던 다산초당원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가 남긴 대부분의 저서들도 이 공간에 머무는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다산초당원은 인성(人性)의 자각을 위한 공간으로도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공간 구성요소에 나타난 의미

### 1) 다도(茶道)를 위한 공간

다산초당원이 공간구성요소에 있어 다른 정원과 특히 구별되는 점이라 한다면, 바로 다도(茶道)를 위한 다조(茶籠)와 약천(藥泉)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그의 생활에서 차를 마시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다.

정약용이 다도생활에 심취하게 된 계기는 엄격한 유배생활이 어느 정도 풀릴 무렵, 백련사를 방문하여 자신보다 10살 아래인 아암 혜장선사(1772~1811)를 만나(1805년)<sup>26)</sup> 차 마시는 것을 소개받고 난 이후부터라고 한다.<sup>27)</sup>

정약용이 차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는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은 1805년 겨울, 그가 혜장선사에게 차를 청하기 위해 쓴 「결명소(乞茗疏)」의 한 부분이다.

.....산에 땀나무하러 못 가는 걱정(자기 병의 겹손한 말)이 있어 차를 구하는 뜻을 말씀드리오. 들건대

고해(苦海)를 건너는 때는 보시를 가장 중히 여기니, 이름난 산의 고액(膏液)이며 풀 중의 영약으로 으뜸인 차가 제일이오. 목마르게 바라는 뜻을 헤아려 달빛과 같은 은혜를 아끼지 말기 바라오.<sup>28)</sup>

차를 마시는 생활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 그러한 차가 자신의 수중에 없기에 차를 구하려는 심정이 간절하게 드러난다. 한편, 그가 해배한 뒤에도 강진에서 나는 차를 매년 올려보낼 것을 당부하는 글<sup>29)</sup>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에게 있어 차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잘 말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초당원의 주변공간에 차나무가 무성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이곳은 물이 맑고 대나무 숲이 아늑하여서 그가 귀양살이에서의 유일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 다도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제공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도가 그의 주된 취미생활이 된 것은 혜장선사의 만남이 일차적인 계기이지만, 무엇보다도 귀양살이의 고독을 달래고 통분을 이기며 정신을 정화시키어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도가 유용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도를 통하여 기약없이 막막한 자신의 현실을 관조하고 주어진 여건을 선택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다산초당원은 표면적으로는 차를 마시기 위한 취미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지만 보다 내면적으로는 귀양살이에 대한 소요(逍遙)와自得(自得)의 공간이었다.

### 2) 경작을 위한 공간

다산초당원의 주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채포(菜圃)는 삶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26) 정약용, 「兒菴藏公塔銘」에서는 아암과 다산이 서로 만나 서로 주역에 심취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박석무 역주(1985), 앞의 책 : 371-372)  
 27) 草衣 저, 임종욱 역주(1993), 앞의 책 : 374 참조. 혜장선사는 주역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 정약용이 차를 접하게 된 계기도 선사와의 교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有采薪之疾 聊伸乞茗之情 竊聞苦海津梁 最重檀那之施 名山膏液 潛輪瑞草之 魁宜念溼希母慣波惠 (정약용, 「乞茗疏」, 정원고 외 편역(1986), 『茶香禪味』, 2권, 서울 : 보림사 : 350)  
 29) 이러한 사실은 「다산제생문답증언문(茶山諸生問答證言文)」에서 잘 나타난다.

공간으로, 정약용이 자급자족하는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정약용이 남긴 글들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세상은 속세와 동떨어져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가 아닌, 농업노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품경작도 행하는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는 보다 현실적인 세상이다. 이러한 세계는 이용후생과 경제치용을 강조한 그의 입장을 잘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정가(丁家)의 농사는 노비들에 의한 소작과 함께 가족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상품작물, 과수의 재배나 양계, 양잠, 조림으로 양분되었다고 한다.<sup>30)</sup>

유배시절 역시 채소 가꾸기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장공 동파 시에 화답하다(和蘇長公東坡八首)중 서(序)

나는 원래 채소밭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유락(流落)한 이후로는 더욱 할 일이 없어 그러한 생각을 두어 온 지가 오래지만 땅이 좁고 힘이 못 미쳐 지금까지 그리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정약용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급자족의 세상을 다산초당원 공간에서 나타난 각종 채소와 약재, 여러 수목들을 자신이 직접 식재하고 가꿈으로써 보다 구체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의경(意境) 구현을 위한 공간

정약용의 시문(詩文)에 의하면 연지에 있던 석가산은 본래 강가에서 구해 온 수십 개의 수석(壽石)으로 이루어져 있고 못을 채우고 있는 물은 첩첩이 쌓여 있는 바위 사이에서

떨어지는 비류폭포에서 흘러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sup>32)</sup>

이때 이용되는 수석은 일반적으로 인공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자연석으로, 자연의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돌 하나에도 자연의 경치가 축소되어 있어 가치 있게 다뤄진다. 그래서 수석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어떤 거대한 물형이 응축되어 있는 신비를 찾아내는데 있다.<sup>33)</sup>

이러한 석가산을 정원에 조영하는 보다 근본적인 의의는 유한한 대상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여,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시작된 원림미학(園林美學)의 범주에 속하는 '의경(意境)'을 위한 하나의 구체화된 정원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의경'의 가치는 한정적인 유한의 세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상외지상(象外之象)', "경외지경(景外之景)"을 추구하는 데 있다. 즉, 작은 공간으로부터 큰 공간으로 인도함으로써 정원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미에 대한 느낌을 풍부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sup>34)</sup> 보다 직접적인 방법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돌을 이용하여 실제의 산을 축소시켜 만드는 작정자는 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形似)의 면밀한 관찰을 통한 본질의 파악을 중시하여야 한다. 단순한 형태의 구현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작정자에게는 필요하며 감상자에게 그러한 정신이 전달되어 느껴질 때 비로소 '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산초당원에 있는 못 주변의 경관은 치산치수(治山治水)에 능한 정약용에 의해 조영되어진 것으로, 그의 자연관과 결부시켜 볼 때 정원에

30) 심경호(1992), "茶山의 微源隱士歌에 담긴 歸田園 意識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5권 3호 : 101-115.

31) 余雅好治園 流落以來益以無事 久有想願顧地窄力 今未就然心物忘也.....(정약용, 《詩文集》論, 제1집 제5권 : 7, 『全書』1)

32) .....怪石拾海濱 峰巒象 或謔如螺蚌 或瑩如瓊玖 或儼如戲蓐 或愁如峻狗..... 或滲水如藪 或蒨紅如醒 或梨垢如耆 各各殊 索性 廷緣帶蒼黝.....(정약용, 《詩文集》, 제1집 제5권 : 29-30, 『全書』1)

33) 장준근(1989), 『옛 선비들의 愛石風流 : 韓國 中國의 愛石古典』, 서울 : 석오출판사 : 65-82.

34) 葉郎(1994), 서진희 역, "中國藝術에 있어서의 意境," 『예술문화연구』 제4집, 서울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연구소 : 220-221.

있어서도 '의경'을 추구하여 전체 인생에 있어 의미를 느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이상향의 구현

『다산사경첩』 「정석」의 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죽각의 서편 바위가 병풍 같으니  
부용성 꽃주인은 벌써 정씨에게 돌아왔네  
학이 날아와 그림자 지듯 이끼무늬 푸르고.....  
도잠처럼 바위에 취했으니.....<sup>35)</sup>

이 부용성은 신선이 산다는 성(城)의 이름으로, 부용성같은 이곳에 본인(즉, 정약용)이 와 있으니 이제, 정씨 자신에게 주인의 권한이 돌아왔다고 설명한다.<sup>36)</sup>

또, 그는 '하늘이 이곳 다산을 내가 죽어서 묻어줄 땅으로 작정해준 깨끗한 신선세계'라 하여 이곳을 꽃다운 이상향으로 가꾸고자 하였다.<sup>37)</sup> 학이나 도잠을 시에서 언급한 것도 다산초당원을 신선이 사는 세상과도 같은 이상향으로 비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래 이상향은 현 생활에 불만족하여 보다 나은 세계와 보다 이상적으로 인간의 가치세계가 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형상(形象)이다. 이러한 이상향은 그 당시의 사상과 문화 등이 근간이 되어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실과의 갈등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상향은 일반적으로 도가(道家)적 성격이 강한데, 이는 중국 육조(六朝)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사대부들은 혼란스러운 사회와 유

학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예법(禮法)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의 정신적·육체적 영원함의 추구는 생명력에 대한 애착과 향락에 대한 추구를 갈망하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유학에 몸을 담고는 있었으나 더이상 유교를 정신적 지주로는 삼고 있지 않았으며 사회를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삼지 않고 현실 세계의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sup>38)</sup> 이러한 도가적 이상향은 당·송대 이후, '이학(理學)'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조선시대의 문화에 고스란히 전수되었다.<sup>39)</sup> 그리하여 조선시대에 은둔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조영의 계기는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윤선도(尹善道)의 세연정(洗然亭) 원림이나 양산보(梁山甫)의 소쇄원(瀟灑園)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상향의 추구는 이러한 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갈등에서 온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정의 명으로 시작된 강진 유배생활에서 알 수 있는 그의 내면적 세계는 당시 세상에 대한 회의와 함께 유배현실에 대한 도피의 갈망이 간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들이 유배지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스스로 옮겨 살기를 자처한 다산초당원에 응집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sup>40)</sup>

그러므로 그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급자족의 공간을 다산초당원에 구현한 것 이외에 이러한 도가적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현실갈등의 해소를 위한 -

35) 竹閣西頭石作屏 容城花主已歸丁 鶴飛影落菩提綠.....陶潛醉處憶忘形.....(정약용, 『茶山四景帖』)

36) 정약용, 『茶山四景帖』

37) 家入一雄 외 저(1940), 앞의 책 : 216.

38) 葛兆光 (1991), 심규호 역(1993), 『道敎와 中國文化』, 서울 : 동문선 : 178-183.

39) 조선후기는 이러한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어지러웠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도가적 사상에서 발로된 정신적 위안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정황 제시하였다.

40) 다산초당원 주변에는 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다도생활을 하기 위해 이용되는 '차나무'가 무성하게 심겨져 있었으며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장선사가 이웃하는 백련사에 머물고 있었다. 또, 대나무 숲에 의한 아늑한 공간감과 강진만이 현히 내다보이는 정원의 입지는 유자적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구현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육조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 발로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 인용문헌

## VI. 결론

지금까지 정약용의 주변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본 결과, 그에게 있어 다산초당원은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작지에서부터 취미와 감상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세계를 성숙시켜주는 장(場)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詩)·서(書)·화(畵)가 유자들에게 인격을 수양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면, 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다산초당원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정원이 형태적으로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왕의 권위가 절대시되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유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정신세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음이 설득력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자연을 이용하고 보전할 줄 알았던 정약용의 자연관, 나아가서 원시유학에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자연관은 오늘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장 인간 중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신적 근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 대부분의 역사공간들이 그러하겠지만 - 본 연구에서도 정원의 원형 추정이 난점으로 작용하여 공간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설계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정원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한국정원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전통정원의 현대적 재현에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에 나름대로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1. 정약용, 『與猶堂全書』, 서울 : 景仁文化史
2. \_\_\_\_\_ 저, 박석무 역주(1985), 『茶山散文集』,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321-322, 371-372.
3. \_\_\_\_\_, 『茶山四景帖』
4. \_\_\_\_\_, 『鮮文 朝鮮博物志 (全) - 原名 山林經濟』, 朝鮮研究會藏版 : 395.
5. 家立一雄 외 저(1940), 김명배 역(1991), 『朝鮮의 茶와 禪』, 서울 : 보림사 : 216, 240.
6. 葛兆光 저(1990), 심규호 역(1993), 『道敎와 中國文化』, 서울 : 동문선 : 178-183.
7. 광주직할시(1994), 『교원 연수원 현장 설명자료』 : 183.
8. 김우창·김종철(199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포에티카』 제1권 1호, 서울 : 민음사 : 28.
9. 다산학연구원(1978), 『茶山學報』 제1권 : 238-239.
10. 박낙규(1986), "육조시대 예술론의 특징," 『미학』 제11권, 한국미학회 : 11-19.
11. 심경호(1992), "茶山の 微源隱士歌에 담긴 歸田園의식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5권 3호 : 101-115.
12. 안중수(1995), "孟자의 自然觀," 『철학』 11, 한국철학회 : 15.
13. 葉郎(1994), 서진희 역, "中國藝術에 있어서의 意景," 『예술문화연구』 제4집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연구소 : 220-221.
14. 이태호(1982), "茶山 丁若鏞의 繪畵와 繪畵觀," 『茶山學報』 제4권 : 42-44.
15. 이택후 저(1990), 권 호 역(1994), 『華夏美學』, 서울 : 동문선 : 19-21, 94.
16. 장동희(1986), 『정약용의 정치사상』, 서울 : 일지사 : 48, 50-51.
17. 장준근(1989), 『옛 선비들의 愛石風流 : 韓國, 中國의 愛石古典』, 서울 : 석출출판사 : 62-82.
18. 정원고 외 편역(1986), 『茶香禪味』 2권, 서울 : 보림사 : 350.
19. 중앙일보사(1982), 『韓國의 美 - 산수화 下』 12권 : 圖 156, 256-257.
20. 草衣 저, 임종욱 역주(1993), 『草衣禪師年譜』, 『草衣選集』, 서울 : 동문선 : 376.
21. 허영환(1988), 『中國畵論』, 서울 : 서문당 : 63.